

## 最近의 國際原油價格動向과 展望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최근 몇몇 産油國들이 重質原油의 公示價를 인상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國際石油價格이 다시 上昇局面으로 돌아서는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重質原油의 가격상승은 최근 B-C油 등 重質原油에서 주로 생산되는 石油製品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라 重質原油를 정제하여 販賣하는 것이 精油會社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美國과 유럽에서 重質油分解裝置를 갖춘 精油會社들이 늘어나는 등 重質油의 수요증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전반적인 國際石油價格은 당분간 현수준에 그대로 머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베네수엘라와 멕시코는 8월 1일을 기하여 重質原油의 公示價를 각각 배럴당 0.39~1.5달러, 1달러씩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産 Boscan油(10 API°)의 公示價는 배럴당 18.4달러에서 19.9달러로, Temblador油(19API°)는 23.89달러에서 24.28달러가 되었으며, 멕시코産 Maya油(22 API°)의 公示價는 배럴당 23달러에서 24달러로 높아졌다. 또한 7월 29일에는 이란도 重質原油(31API°)의 公示價를 배럴당 27.1달러로 20센트 인상하고 이를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國家들이 重質原油의 公示價를 인상한 것은 現物油價가 公示價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란産 重質原油의 現物價

는 지난 3月末의 배럴당 26달러 이하에서 6月末에는 27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최근에는 27.4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重質原油의 現物價格이 상승한 것은 重質原油에서 많이 생산되는 B-C油 등 石油製品들의 가격이 다른 石油製品들의 가격보다 크게 상승하여 精油會社들이 重質原油를 많이 구입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美國市場의 경우, 輕質原油에서 많이 나오는 揮發油, 輕油 등의 7月中 가격은 1/4分期의 평균가격에 비해 5~7% 상승한 데 그친 반면, 重質原油에서 많이 나오는 發電 및 工場用 燃料油의 가격은 11~12%나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原油 1배럴에서 뽑아낼 수 있는 石油製品의 價値를 나타내는 總生産價値(Gross Product Worth: GPW)는 重質原油일수록 公示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美國市場의 7월중 GPW와 公示價와의 차이는 北海産 Brent油(37API°)가 배럴당 0.6달러, 사우디産 輕質油(34API°)가 0.3달러에 불과한 데 비해 사우디産 重質油(27API°)는 1.85달러이며 멕시코産 Maya油(22API°)는 무려 5.66달러에 달하였다.

重質原油의 가격이 상승한 또 다른 요인으로 는 重質油分解裝置를 갖춘 精油會社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精油會

사들은 멕시코産 Maya原油에서 10%정도의 揮發油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重質油分解施設을 갖춘 精油会社들은 보통의 精油会社들이 輕質原油에서 揮發油를 생산할 수 있는 비율(약 15~20%) 이상으로 揮發油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輕質原油에 비하여 보다 값싼 重質原油을 選好하게 된다.

日本에 너지 經濟研究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美国은 石油精製施設의 51%가 重質油分解裝置를 갖추고 있으며 西獨은 25%, 英國은 24.3%, 네덜란드는 23%, 日本은 5%가 重質油分解裝置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지리적인 이유로 美国에 주로 수출되는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産 重質原油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美国의 石油製品價格이 重質原油을 정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精油会社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인 데다 美国의 精油会社들이 重質油分解裝置설비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重質原油價 상승은 수요증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이를 國際石油價格이 다시 상승국면으로 돌아서는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重質油價格상승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石油製品價格의 인상압력이 市場原理에 의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世界石油需給事情을 고려하면 적어도 당분간은 國際石油價格이 현수준에 그대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가 7월에 발표한 「世界經濟展望」에 따르면, 石油輸出國機構(OPEC)의 하루생산량이 世界景氣回復에 힘입어 금년 上半期の 1,690만 배럴에서 下半期에는 1,950만배럴, 84년에는 2,030만배럴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준은 OPEC의 생산시설 3,185만배럴에 훨씬 못미치며, OPEC國家들이 經濟開發計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產油量에 비해서는 300~500만배럴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OPEC스스로도 지난 3월의 油價引上이후 모처럼 나타난 石油需要增加勢를 해칠 가능성이 큰 公示價引上措置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이번 重質原油價上昇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重質油分解施設의 확장추세를 우리나라도 注目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美国을 비롯한 先進諸國들은 오래 전부터 重質油分解施設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는 주로 輕質原油에서 생산되는 揮發油, 輕油 등의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輕質原油의 공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重質原油에서 揮發油, 輕油 등을 보다 많이 생산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輕質原油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인구에 비하여 풍부한 石油埋藏量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穩健派産油國들이 장기적인 石油輸出收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輕質油의 수출을 억제하고, 重質油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石油代替에 너지의 開發 등으로 에너지로서의 石油需要는 점차 줄어들어 石油은 주로 石油化學工業과 같은 非에너지部門에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 石油化學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등이 많이 생산되는 輕質原油의 수요는 계속 現水準 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石油消費國들의 石油製品消費形態는 주로 輕質原油에서 생산되는 揮發油 등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自由世界전체의 石油製品消費量중에서 揮發油가 차지하는 비중은

〈表-1〉 美国의 主要石油製品價格 推移

	1983				
	1/4分期	2/4分期	5月	6月	7月
鉛이 첨가되지 않은 揮發油 <sup>1)</sup>	81.7	87.4	86.5	88.0	87.0
보통 揮發油 <sup>1)</sup>	79.5	85.3	84.5	86.0	85.0
輕油 <sup>1)</sup>	75.2	76.7	74.5	78.0	79.0
重油 <sup>2)</sup>					
(硫黃含有 1%)	23.92	25.58	25.50	26.25	26.50
(硫黃含有 2.2%)	22.50	23.67	24.00	23.50	25.25

〈資料〉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July 25, 1983.

註: 1) US¢/갈론(1갈론=3.785리터)

2) US¢/배럴(1배럴=31.5갈론)

1977년의 26.1%에서 1980년에는 26.7%, 1982년에는 28%로 계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重質油分解施設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그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

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세계전체의 精油会社들이 대부분 重質油分解施設을 갖추게 되면 OPEC을 중심으로한 産油國들이 重質油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油價體系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

〈表-2〉 美国精油会社들의 原油別 石油製品生産 構成比

〈單位：%〉

原油 API°	北海 産油 Brent 油	나이지리아産 輕 質 油	사우디産 輕 質 油	사우디産 重 質 油	이란産 輕 質 油	美国産 WTI 油	멕시코산 Maya 油
石油製品	37.4	37	34	27	34	40	22
겨울철 揮發油	46.6	46.8	42.2	35.4	41.0	47.9	31.8
輕油	27.1	33.1	27.8	22.1	26.9	29.6	21.4
重油	22.2	16.1	25.9	38.4	28.2	18.6	43.0
여름철 揮發油	54.2	55.8	49.4	41.2	47.6	56.2	37.2
輕油	19.7	24.2	20.7	16.3	20.2	21.2	15.8
重油	22.2	16.1	25.9	38.4	28.2	18.6	43.0

〈資料〉 〈表-1〉과 同一

〈表-3〉 네덜란드 精油会社들의 原油別 石油製品生産 構成比

〈單位：%〉

原油 API°	北海 産油 Brent 油	나이지리아産 輕 質 油	사우디産 輕 質 油	사우디産 重 質 油	이란産 輕 質 油	노르웨이産 Ekofisk油	이집트産 Suez 油
石油製品	37.4	37	34	27	34	44	34
겨울철 나프타 揮發油	6.6	6.7	5.4	4.6	5.5	8.6	5.0
輕油	19.9	20.3	16.2	13.8	16.6	26.0	15.1
重油	42.0	52.5	40.3	21.8	37.5	40.5	35.5
여름철 나프타 揮發油	27.2	15.4	32.8	54.3	34.8	18.6	40.0
輕油	8.3	8.5	7.0	5.9	7.2	10.4	6.5
揮發油	24.8	25.6	21.1	17.7	21.6	31.1	19.4
輕油	34.7	45.2	33.0	15.3	30.3	33.2	29.2
重油	27.7	15.4	33.4	55.5	35.2	18.8	40.4

〈資料〉 〈表-1〉과 同一

〈表-4〉 7月中 主要地域의 原油別 總生産價値(GPW)

〈單位：US\$/배럴〉

	美 国 (Gulf Coast)	北 洋 灣 (Rotterdam)	南 洋 灣 (Italy)	東 南 亞 (Singapore)	公 示 價	現 物 油 價
사우디産輕質油	29.29	27.82	26.60	28.16	29.00	29.05
이란産輕質油	29.00	27.72	26.61	28.12	28.00	28.28
사우디産重質油	27.85	25.58	24.55	26.85	26.00	26.50
나이지리아産輕質油	30.83	30.06	28.98	29.29	30.02	30.08
멕시코産 Maya 油	28.66	..	..	..	23.00	..

〈資料〉 〈表-1〉과 同一

(表-5) 自由世界の 石油製品別 消費推移

(單位: 백만톤)

	1970	1973	1975	1977	1980	1981	1982
揮 発 油	491.4 (25.4)	596.9 (25.5)	590.4 (26.9)	629.9 (26.1)	633.6 (26.7)	614.1 (27.0)	612.9 (28.0)
輕 油	529.4 (27.3)	648.8 (27.7)	628.2 (28.6)	715.8 (29.8)	714.6 (30.1)	700.2 (30.8)	680.9 (31.1)
重 油	607.6 (31.4)	738.4 (31.5)	649.7 (29.6)	707.5 (29.3)	663.2 (27.9)	600.8 (26.4)	542.1 (24.8)
其 他	309.0 (15.9)	359.3 (15.3)	329.8 (15.0)	358.4 (14.9)	363.5 (15.3)	359.3 (15.8)	350.9 (16.0)
合 計	1,937.4	2,343.4	2,198.1	2,409.1	2,374.9	2,274.4	2,186.8

(資料) British Petroleum Company p. l. c.,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82.

註: ( )안의 숫자는 構成比(%)

□ 國際石油市場動向 □

# 原油去來가 활발해지고 있다

## 現物市場價格도 29달러線 上廻

최근 국제원유시장은 原油수요가 회복되면서 原油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OPEC의 공식가격을 밑돌던 現物市場가격도 基準原油가격인 배럴당 29달러線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OPEC가 배럴당 29달러의 현행가격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原油도입을 억제해 오던 주요 소비국들과 세계石油거래업자들이 도입물량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수요기를 앞둔 계절적인 요인외에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의 확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석유전문가들은 석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OPEC는 오는 9월이나 10월중에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1천7백50만배럴로 책정된 현행 생산쿼터를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움직임에 海運市況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大型탱커의 스파트 備船운임이 최근에 40% 정도 상승했다.

OPEC의 원유생산량은 지난 7월 상승에 하루 1천7백10만배럴에 머물고 있으나, 머지 않아 총생산쿼터인 1천7백50만배럴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原油의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原油의 현물시장가

격도 기준원유인 아라비안 라이트가 지난 7월 15일에 정부공식가격과 같은 수준인 배럴당 29달러로 상승했고, 다시 21일에는 29.1달러를 기록, 공식가격을 상회했다.

OPEC 原油의 수요는 최근 수개월간 하루 2백50만~3백만배럴이 증가했으며, 금년 말까지는 하루 2천만배럴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OPEC는 오는 9월 말까지는 現行의 하루 1천7백50만배럴의 생산쿼터를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생산쿼터를 확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수요의 회복은 大型탱커의 운임시황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해상운임지표인 월드 스케일(WS)을 보면, 지금까지 20 전후에서 움직이던 大型탱커의 運賃市況이 7월 중순 페르샤만-日本에서 WS 28.5를 기록한데 이어, 7월 하순에는 31.5로 상승했다. 또 페르샤灣-西歐에서는 지난 7월 21일 WS 35를 기록하고 있다.

대개 大型탱커는 採算線이 WS 50 전후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조선업계는 원유수요의 감퇴로 극심한 不況을 겪어 왔다. \*